

“효심·불심 함께 배워요”

용주사 효행교육원 각종 프로그램 운영 '정조대왕' 체험·경전강의...5월 개원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효행교육원은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개원, 효행교육을 실시한다.

효행(孝行) 근본도량 경기 화성 용주사(주지 정락)가 효행교육의 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용주사는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효행교육원을 올 초부터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지금까지 한양대 성신여대 불교학부, 전북불교대학, 조계사 대학 등에서 1백여명이 효에 대한 교육과 수련회를 실시했다. 현재는 자체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각종 교육기회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다. 부처님오신날 전에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행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원은 우선 당일이나 1박2일 과정의 수련회를 통해 각종 효행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차츰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용주사가 마련한 효행교육원 교육 운영방안은 정기법회, 효를 주제로 하는 특별법회, 부모은중경 강의, 노인잔치, 청소년 효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성보박물관과 지역 사찰, 문화재 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과 인터넷을 통한 불교적 효 교육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효행교육원이 비중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체험 정조대왕'. 체험 정조대왕은 참가자들이 정조가 되어 효행을 실천하는 내용이다. 정조가 용주사를 효심으로 중창했다는 것도 함께 배움으로써 효심과 불심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용주사의 얘기다.

용주사 교육국장 동운스님은 "경전을 통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지극한 보살행과 자기수행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며 "교육대상자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근기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gamja@buddhopia.com)



◇광덕스님 영결다비식은 교계 원로 중진스님을 비롯 1만여명 사부대중의 애도속에 봉행됐다.

‘바라밀 국토’ 헌신

광덕스님 생애와 발자취

불광법회 발족 '거사불교' 주장 불교 대중화·현대화 이끈 선각자

"전법으로 보리(菩提)를 이루라." 광덕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법회를 걱정하며 보현행자의 길을 걸기위해 모든 정열을 바쳐온 우리시대의 선각자였다.

1950년 범어사에서 동산 큰스님과 만남을 통해 스님은 일찍이 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무한의 세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입산 출가했다.

그 무한한 세계를 증생과 함께 나누기 위해 "일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속에 있는 것이며 마하반야바라밀속에 모든 것이 구족해 있다"는 바라밀관을 펼쳤던 스님은 수행과 전법을 다스려 생각하던 당시의 교단풍토를 개선하고, 전법으로 이땅에 바라밀국토를 건설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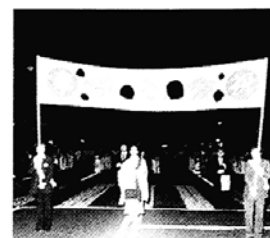
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를 맡아 이땅에 지상불교의 시대를 열었으며, 74년 11월 순수불교 교양지 월간 <불광>을 창간하고, 75년 10월 종로 3가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발족했다. 82년 서울 석촌동 호수가에 현대식 부처님오신날 불광사를 건립해 도심 도교 전기를 이뤘으며, 당시로서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전법활동과 더불어 스님은 중단이 어려움에 처했을때에

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 부의장직을 수행하며 해법을 제시하는 등 중무행정에도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했다.

이외에도 스님은 <보현행원품장외> <행복의 법칙> 등 다수의 저서를 펴냈으며, '부모은중경' '마하반야의 노래' 등 찬불가를 다수 작사했다.

오랜 병고로 편찮은 와중에서도 손수 양말을 빨고, 아침예불을 빼놓지 않을 만큼 철저한 수행인이었던 광덕스님, 스님은 가셨지만 그 가르침은 자기의 진실면목을 믿음의 햇빛로 삼아 이르는 곳마다 법의 광명을 밝히는 전법수행자들의 발길로 오늘도 이땅에 힘입어 이어지고 있다.

이른자 기자



◇매년 부처님오신날 여의도 제동행렬에 참가한 광덕스님.

열반송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겁전 불소식이 겁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불현상을 펼쳤으니, 광정산이 담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스님은 그렇게 우리곁을 떠났다. 범어사 보리루에 마련된 분향소에 는 해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석주스님(철보사 조실), 청화스님(전 태안사 조실), 녹원스님(적지사 주지),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법동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등과 전국에서 스님의 입적을 애도하는 불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범어사 산내암자인 지장암에서 거행된 다비식에서는 치아사리 등 여러과의 사리가 출현했으나, 스님의 유골을 받들어 금어선원 뒤 금정산 자락 대숲속의 대표적 선승인 동시에 이 시대 한국불교의 대중화 현대화에 새로운 장을 연 선각자 광덕스님.

천미희 기자

日 '일광삼존불' 기증

월드컵 개최 기념 부여에 분신불 봉안

백제 때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일본 선공사 본존불 일광삼존불의 분신불(복제불상)이 2002년 월드컵 한일공동개최에 맞춰 부여로 봉안된다.

한일고대문화협회(총재 효란스님, 회장 주양자)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공사측과 합의한 일광삼존불 봉안계획을 밝혔다. 봉안합의서에 따르면 △일광삼존불 분신불의 제작 및 봉송에 드는 2억여원의 비용은 선공사측이 부담 △한일공동고대문화협회는 부여에 성왕사를 건립해 이 불상을 본존불로 봉안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1천5백년만에 귀향하는 일광삼존불.

통일기원 맨발순례

스님 10명 부산-임진각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맨발로 맨발로'. 2천8백리의 남한국토를 맨발로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느끼고 경제난국복의 의지를 다지는 국토순례행사가 벌어진다.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총재 인왕·여래종 종정) 주최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장 의문) 주관으로 개최되는 '평화통일기원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맨발국토순례'가 그것.

18일 임진각 망향비 앞에서 입재해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45개 지역을 경유한 후 5월1일 부산 온정사에서 45일간의 대장정을 회향한다. 덕진스님(대한불교조계종총연합회 기획실장)을 비롯한 10명의 스님들로 구성된 순례단은 매일 경유지에서 릴레이법회를 병행하고, 조성된 기금은 각 지방 소년소녀가장에게 기탁한다. 순례단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2)608-7933

도필선 기자 (psdo@buddhopia.com)

사찰옆 수녀원 건립 주민 반대로 백지화

천주교 부산교구청이 경남 양산 통도사 측서암 인근에 건립할 계획이었던 수녀원 및 노인복지시설이 부당 △한일공동개최에 맞춰 부여로 봉안된다.

부산교구청은 통도사와 주민들이 강력하게 대응하자 2월 22일 양산시에 건립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구청이 통도사 부속암자인 측서암 인근 수녀원을 추진하자 통도사측과 주민들이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김종근 기자

불국토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대상 가사보조·의료·이미용 서비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는 3일 부산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소장 혜충스님)를 개소했다. 불국토 이사장 정관스님, 개근사회복지관장 정여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개소식에서 혜충스님은 "부처님께 공양 올리듯이 정성껏 모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8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으로 자원봉사자가 노인 가정 방문, 유·무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게 되는 부산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 가정의 노인, 60세 이상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대상가정에 가사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식사수발, 용변보조, 이·미용, 말벗, 행정업무 대행, 생활상담, 결연서비스 등을 월1회 이상 펼치게 된다.

부산진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동참할 유·무로 자원봉사자와 일반후원, 결연후원, 현물후원 등 후원을 모집중이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보현사 평생교육대 개원

대구 보현사(주지 지도)부설 평생교육대학이 8일 개원했다. 평생교육대학은 보현사 불광 지하에 강의실, 성운주거, 탁견, 자녀글쓰기 지도 등 9개 강좌를 개설한다. 이 강좌는 전통문화 중심으로 짜여진 게 특징이다.

계절학교, 역사기행반, 야생초담 사반 등의 특별강좌도 수시로 개설된다. (053)254-6966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단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화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분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 괘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판각형
· 만다라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액과의 영향이 완전히 차려지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액 차단 실험은 2명의 수액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기념품·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